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환경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상호작용

Adolescent's Self-Esteem,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Interaction of Positive Self-Evaluation and Negative Self-Evaluation

정득*, 이종석**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한림경영연구소**

Deuk Jung(deuk1226@hallym.ac.kr)*, Jongseok Lee(ljs1844@hallym.ac.kr)**

요약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3차년도(2012)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3학년 2,040명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환경특성(부모친밀도, 친구친밀도, 교사친밀도, 학습적응도)과 개인특성을 고려하였다. 개인특성으로서 자아존중감을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에 대한 평가라는 별개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을 때,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두 평가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했다. 즉 부정적 자아평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에 따라 달랐는데, 긍정적 자아를 높이 평가할수록 부정적 자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음(-)의 영향은 감소했다. 또한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지만, 긍정적 자아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부정적 자아 형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긍정적 자아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정적 자아 형성의 문제해결을 넘어 긍정적 자아 형성을 위한 방안과 정책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 중심어 : | 청소년 |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도 | 상호작용 | KCPYS 2012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self-esteem on the life satisfaction of 2,040 middle school senior students using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2 Data (KCYPYS 2012) provid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the ecological perspectives, this study considers two factors which influenc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one factor is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like parent intimacy, friend intimacy, teacher intimacy and study adaptation, and the other factor is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self-esteem as one of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is divided into two separate categories, positive self and negative self. The two categories are found to have some interaction eff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at the evaluation level. The effects of the negative self-evaluation on the life satisfaction appear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level of the positive self-evaluation. As the level of the positive self-evaluation becomes higher, the effects of the negative self-evaluation on the life satisfaction decreases. The life satisfaction becomes higher as the level of the negative self-evaluation is lower, and the life satisfaction is not high relatively at the low level of the positive self-evalu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lving the adolescent's negative self-formation problem can not bring out the positive self-formation and there should be some plans for the positive self-formation more than simply solving the negative self-formation problem in order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 keyword : | Adolescent | Self-esteem | Life Satisfaction | Interaction Effect | KCPYS 2012 |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G-2013-2)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5년 07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8월 20일

수정일자 : 2015년 08월 10일

교신저자 : 이종석, e-mail : ljs1844@hallym.ac.kr

I.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실시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에서, 주관적 행복지수는 6년 모두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1]. 특히 학교급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2], 어린이에 비해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 만족도를 의미하며, 환경에 대한 인지적 삶의 만족과 일상생활에서 겪은 정서적 경험을 반영한다[3].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청소년기의 정서적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속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외부환경에서 느끼는 주관적 경험으로,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4]. 따라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선행 연구들[5-7]에서 개인특성이 행복 혹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개인특성이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다[8].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평가적 신념으로, 환경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심리특성이다[9].

전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를 양극단으로 하는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흔히 사용하는 Rosenberg의 척도[9]는 자아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정도를 묻는 5개 문항과 부정적 평가 정도를 묻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이들 10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하게 되는데, 긍정적 평가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 문항의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이미리[10]는 부정적 자아에 대한 낮은 평가가 긍정적 자아에 대한 높은 평가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자

아존중감의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에 대한 평가를 독립적인 별개의 차원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에 관련된 최근연구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개인이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 및 발달하는 개체로 파악한다[10-15].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특성으로 가정 및 부모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 등이 제시되어 왔다[11][14]. 행복감을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로 구분할 때, 삶의 만족도는 인지적 평가에 해당한다. 정서적 평가는 환경에 대한 적응 혹은 부적응의 결과로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4][16]. 기존의 청소년 정서에 관한 연구는 비행이나 범죄와 같은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성이나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에 초점을 두어 왔다[10]. 하지만 부적응 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적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 정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는 독립적이며,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다르다[17]. 행복감의 정서적 평가 차원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에 대한 인지적 평가도 별개의 차원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개인특성으로서 자아존중감을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에 대한 평가라는 별개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고, 두 평가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에 대한 평가가 독립된 요인인지 평가할 것이다. 독립된 별개의 요인이라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두 평가차원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 평가차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평가차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특성으로서 부모친밀도, 친구친밀도, 교사친밀도, 그리고 학습적응도를 고려할 것이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심리학에서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개념으로 측정하면서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로 구분하였고 [3][18][19], 삶의 만족도는 행복의 인지적 평가로서 주어진 환경에 대해 자신의 삶을 느끼는 총체적인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한다[3]. 초기 연구들은 삶의 만족도와 정서 측정에 있어 그 타당성이 주된 관심 분야였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국적, 나이,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초점을 두었다[7]. 하지만 이러한 변수들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15%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크게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주요한 개인특성 변수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이며[4][20][21], 환경특성 변수는 가정, 친구 그리고 학교와 관련된 변수이다[11][14][25]. 특히 청소년기에는 가정보다 친구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이다 [14].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이 외부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다는 Bronfenbrenner[23]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은 모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관한 최근 선행연구들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으로 가정이나 학교 등의 미시체계를 고려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개인특성은 자아존중감이었고, 환경특성은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성연 외[14]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개인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문화수준을 생태학적 관점으로 연구하였다. 연령과 성, 자아존중감을 개인특성 요인으로 분석하였고, 부모관계, 친구와 교사의 상호작용, 복지수준 등의 여러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성은모와 김근희[11]는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특성으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을 설정

하였고, 환경특성으로 경제수준, 부모, 또래, 학교, 지역사회를 관찰변수로 하였다. 구조분석 연구결과 청소년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개인특성이었고 환경특성은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윤민지와 유성경[12]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긍정적 정서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들[13][24]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환경특성은 학교와 가정이며[25] 청소년의 환경적응에 대해 가장 많이 다룬 개인특성 변수 가운데 하나가 자아존중감이었다[26].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수로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18][27][28].

기존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양극단의 단일 차원 개념으로 인식하였으며,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높고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부정적 자아에 대한 낮은 평가가 긍정적 자아에 대한 높은 평가로 이어진다는 가정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10].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적응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이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자아평가나 부정 정서에 대한 연구로는 불충분하며, 긍정적 자아평가나 긍정 정서와 같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인간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독립적이며,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17].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별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삶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에 대한 평가라는 개별적인 차원으로 구분하고, 개인특성(긍정적 자아평가, 부정적 자아평가)과 환경특성(부모친밀도, 친구친밀도, 교사친밀도, 학습적응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자아존중감의 두 평가 차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지 파악할 것이다[그림 1].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한다면 긍정적 자아

평가 수준에 따라 부정적 자아평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며, 반대로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에 따라 긍정적 자아평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H₁ : 환경특성으로서 부모친밀도, 친구친밀도, 교사친밀도, 그리고 학습적응도는 각각 삶의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₂ : 개인특성으로서 자아존중감의 두 차원 중 부정적 자아평가는 삶의 만족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긍정적 자아평가는 삶의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₃ : 자아존중감의 두 차원(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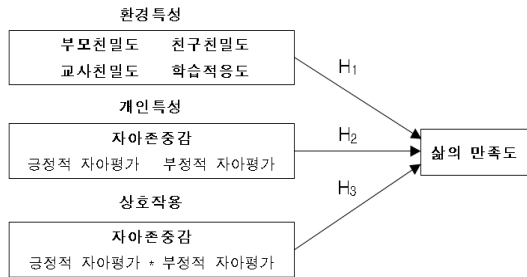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델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2(3차년도)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22]. 국내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에 시작된 이 패널조사는 2016년까지 7년간 매년 주기로 실시할 예정인 종단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2009년 4월 기준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개 코호트 중다패널(multiple panel design)을 선정하여, 매년 이들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본은

교육부 학교통계를 표집틀로하여 78개교에서 선정되었고, 모집단 인구구성을 반영하여 16개 시도별로 비례배분하였으며 권역별 특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1개 시도당 3개교 이상이 선정되었다[30]. 또한 남녀공학과 여학교 및 남학교로 구분하여 할당되었으며 학교당 평균 80%의 유효응답률을 가정하여 전체표본수 2,351명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nypi.re.kr)에 정회원 가입을 하여 연구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함에 승인을 받고 초록에 데이터 출처를 명시하였으며, 3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가운데 무응답 항목이 있는 표본을 제외한 2,040명(남학생 1,024명, 여학생 1,016명)을 대상으로 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중학교 3학년용으로 개발된 설문 문항들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30]. 변수는 개인특성으로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환경특성으로 부모, 친구,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들은 중심화경향(centralization tendency)을 제거하기 위해 ‘보통이다’에 답할 수 없게 만든 리커트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변수에 대한 의미가 높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 2, 1, -1, -2점 척도로 역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김신영 외[31]의 연구에서 개발된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9]의 10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의 평가에 관한 항목으로 구분된다. 부모환경은 허묘연[32]이 제작한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문항들 중 방임 4문항을 활용하였다. 친구환경은 Armsden과 Greenberg[33]가 제작한 애착척도 중 의사소통 3문항과 신뢰 3문항을 활용하였다. 학교환경은 민병수[34]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문항들 중 학습활동 5문항과 교사관계 5문항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최종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표 1]과 [표 2][표 3]에 제시하였다.

3. 분석방법

통계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SPSS 19.0와 AMOS 18.0을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설문문항들로 구성된 측정변수의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의 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측정하였다. 또한 추출된 잠재요인의 구성개념 타당성과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추가하였다. 2) 연구변수들의 선형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3)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자아존중감의 두 차원인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두 변수의 곱한 항을 포함시켰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1,024명으로 50.2%, 여학생이 1,016명으로 49.8%였다. 학교 유형별 분포는 남자학교 212명(10.4%), 여자학교 257명(12.6%), 그리고 남녀공학 1,571명(77.0%)이었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특별시 180명(8.8%), 6대 광역시 681명(33.4%), 경기도 258명(12.6%), 그리고 기타지역 921명(45.1%)이었다. 소득수준별 분포는 저소득층 271명(13.3%), 중산층 1,387명(68.0%), 그리고 상위층 382명(18.7%)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성별	남 학생		학교	남자학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지역	서울시	180명	8.8%	남녀공학	1,571명	77.0%	
	광역시	681명	33.4%	저소득층	271명	13.3%	
	경기도	258명	12.6%	중산층	1,387명	68.0%	
	기타지역	921명	45.1%	상위층	382명	18.7%	
	부모 양부모	1,771명	86.8%	부모	편모/기타	269명	13.2%

2.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측정변수의 타당도와 개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특성(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과 환경특성(부모, 친구, 학교)의 문항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각각 [표 2-4]와 같다.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이 각 변수를 설명하는 정도인 공통성(communality)이 0.5 이하인 설문 문항은 제거하였다.

표 2. 자아존중감 두 평가 차원의 신뢰도와 타당도

측정변수		F1	F2	공통성	신뢰도	
자아존중감	긍정적 자아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0.799	-0.151	0.661	0.804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0.737	-0.146	0.564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0.730	-0.057	0.642	
		나는 나에게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0.694	-0.312	0.578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0.667	-0.254	0.510	
부정적 자아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086	0.829	0.695	0.811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0.183	0.812	0.697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0.185	0.753	0.601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0.275	0.707	0.693	
고유값		3.920	1.495	누적분산(%)		
분산(%)		43.55	16.62	60.17		

KMO's MSA = 0.861, Bartlett Sphericity test : p-value < 0.001

표 3. 삶의 만족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측정변수		F1	공통성	신뢰도
삶의 만족도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0.886	0.785	0.814
	나는 사는 게 즐겁다	0.857	0.735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0.778	0.605	
고유값		2.125	누적분산(%)	
분산(%)		70.84	70.84	

KMO's MSA = 0.673, Bartlett Sphericity test : p-value < 0.001

[표 2]와 [표 3]은 청소년의 개인특성으로서 자아존중감 10문항과 삶의 만족도 3문항을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각각 수행한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에 관한 1개의 문항은 공통성이 권장수준인 0.5를 상회하지 못하여 제거되었다. 자아존중감으로서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

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독립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의 신뢰도는 각각 0.804, 0.811, 0.814로서 권장기준인 0.7을 상회하였다.

[표 4]는 청소년의 환경특성에 관한 20개 설문문항을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3개 문항이 공통성 권장수준인 0.5보다 낮아 제거되었고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친구친밀도와 관련된 의사소통과 신뢰는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추출된 4개 요인의 신뢰도는 각각 0.882, 0.841, 0.776, 0.809로서 모두 권장기준인 0.7을 넘어 높게 나타났다.

표 4. 환경특성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측정 변수	F1	F2	F3	F4	공통성	신뢰도
부모님에 대한 신뢰 부모님에 대한 신뢰 부모님에 대한 신뢰	부모님은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0.852	0.149	0.084	0.090	0.764
	부모님은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0.814	0.196	0.073	0.100	0.717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0.791	0.191	0.087	0.133	0.687
친구친밀도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0.141	0.832	0.117	0.104	0.736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0.201	0.808	0.088	0.121	0.715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0.068	0.807	0.125	0.061	0.676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0.086	0.789	0.091	0.071	0.644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0.203	0.786	0.117	0.130	0.690
교사친밀도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0.033	0.123	0.817	0.136	0.702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0.030	0.179	0.789	0.155	0.679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0.126	0.066	0.757	0.189	0.629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0.081	-0.012	0.740	0.079	0.561
학습적응도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0.045	0.217	0.702	0.237	0.598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0.110	0.098	0.132	0.804	0.686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0.101	0.052	0.116	0.782	0.638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	0.099	0.156	0.173	0.701	0.555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0.041	0.096	0.267	0.680	0.544
고유값	1.436	5.591	2.512	1.683	누적 분산(%)	
분산(%)	8.44	32.89	14.78	9.90	66.01	

KMO's MSA = 0.874, Bartlett Sphericity test : p-value < 0.001

[표 5]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잠재요인들의 구성개념 타당성과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개인특성, 환경특성, 그리고 전체 측정변수들의 구성개념 적합도지수인 CFI, NFI, TLI는 모두 수용기준인 0.9를 상회하였다. 또한 RMSEA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측정모형이 각각 0.067, 0.062로 수용기준인 0.08보다 작았으며, 전체는 0.048(0.05 미만)로서 측정변수들의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도가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 측정변수들의 구성개념 적합도 지수

적합도지수	χ^2	df	CFI	NFI	TLI	RMSEA
개인특성	520.8***	51	0.950	0.945	0.936	0.067
환경특성	1009.5***	113	0.931	0.923	0.916	0.062
전체	2044.1***	356	0.928	0.914	0.917	0.048

*** p-value < 0.001

3. 연구대상 변수들의 특성과 상관관계

[표 6]은 연구대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환경특성 변수들 중 부모친밀도의 평균이 1.10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친밀도 0.944, 교사친밀도 0.611, 학습적응도 0.532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교사친밀도(0.902)가 가장 컸고, 친구친밀도(0.732)가 가장 작았다. 개인특성으로 자아존중감의 두 차원인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평균(표준편차)은 각각 0.708(0.753)과 -0.473(1.003)이었다. 삶의 만족도의 평균(표준편차)은 0.545(0.979)이었는데, 평균이 1점(만족한다) 이하라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연구대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표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부모친밀도	2,040	1.107	0.772	-2	2
친구친밀도	2,040	0.944	0.732	-2	2
교사친밀도	2,040	0.611	0.902	-2	2
학습적응도	2,040	0.532	0.750	-2	2
긍정적자아	2,040	0.708	0.753	-2	2
부정적자아	2,040	-0.473	1.003	-2	2
삶의만족도	2,040	0.545	0.979	-2	2

[표 7]은 연구변수들의 선형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상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교사친밀도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상관관계만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고, 다른 변수들의 상관계수는 모두 $p < 0.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삶의 만족도와 선형관계가 가장 강한 변수는 긍정적 자아평가로서 상관계수가 0.583이었고, 그 다음으로 부정적 자아평가 -0.411 로서 음(-)의 선형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상관계수는 -0.444 로서 음(-)의 선형관계를 가지며, 긍정적 자아평가는 4개의 환경변수와 모두 양(+)의 선형관계가 있는 반면 부정적 자아평가는 환경변수 모두와 음(-)의 선형관계가 있었다.

표 7. 변수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부모친밀도	1						
2. 친구친밀도	0.361 ***	1					
3. 교사친밀도	0.196 ***	0.262 ***	1				
4. 학습적응도	0.267 ***	0.264 ***	0.398 ***	1			
5. 긍정적자아	0.294 ***	0.366 ***	0.292 ***	0.368 ***	1		
6. 부정적자아	-0.242 ***	-0.212 ***	-0.072 **	-0.187 ***	-0.444 ***	1	
7. 삶의만족도	0.253 ***	0.307 ***	0.224 ***	0.283 ***	0.583 ***	-0.411 ***	1

** p -value < 0.01, *** p -value < 0.001

4.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

[표 8]은 연구대상 중학교 3학년 학생 2,040명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를 환경특성 변수들(모형 1), 개인특성 변수들(모형 2), 그리고 환경특성과 개인특성 변수들(모형 3)로 구성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모형 3은 환경특성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개인특성 변수인 자아존중감의 두 척도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 그리고 상호작용항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확인하려고 설정되었다.

3개 모형 모두에서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권장기준인 10보다 훨씬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모형 1은 성별구분과 함께 환경특성 변수들(부모친밀도, 친구친밀도, 교사친밀도, 학습적응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2는 개인특성으로서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독립변수로 자아존중감의 두 차원인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뿐만 아니라 두 차원의 상호작용 항이 포함되었다. 두 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17.7%와 38%로 삶의 만족도에 더 많은 설명력을 갖는 요인은 환경특성보다 개인특성이었다. 이것은 환경특성을 통제하고 개인특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모형 3의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	독립변수	β	p -value	Partial R	VIF	Adjusted R ²
모형1 (상수)	성별구분1)	-0.298	<0.001	-0.163	1.032	0.177
	부모친밀도	0.146	<0.001	0.115	1.198	
	친구친밀도	0.296	<0.001	0.214	1.245	
	교사친밀도	0.078	0.001	0.071	1.236	
	학습적응도	0.199	<0.001	0.173	1.271	
모형2 (상수)	긍정적자아	0.685	<0.001	0.504	1.312	0.380
	부정적자아	-0.283	<0.001	-0.244	2.143	
	긍정적*부정적자아	0.123	<0.001	0.133	2.183	
	상수	-0.064	0.078			
모형3 (상수)	성별구분	-0.151	<0.001	-0.096	1.060	0.399
	부모친밀도	0.047	0.053	0.043	1.237	
	친구친밀도	0.118	<0.001	0.098	1.322	
	교사친밀도	0.043	0.042	0.045	1.264	
	학습적응도	0.066	0.003	0.066	1.352	
	긍정적자아	0.584	<0.001	0.415	1.617	
	부정적자아	-0.278	<0.001	-0.242	2.178	
	긍정적*부정적자아	0.127	<0.001	0.140	2.202	
	상수					

1) 성별구분: 남성 = 0, 여성 = 1

모형 3은 연구모형[그림 1]과 같이 모형 1의 환경특성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하였고, 모형 2의 개인특성 변수들을 모두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상수항과 부모친밀도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추정된 회귀계수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으며, 회귀모형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39.9%

이었다. 이 결과에서 환경특성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에도 모형 2와 같이,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독립변수와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했다. 모형 1과 비교했을 때 모형 3의 R^2 변화량(ΔR^2)은 0.222(=0.399-0.177)로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었다($\Delta F=252.7, p\text{-value} < 0.001$). 각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편상관계수(partial R)의 제곱값이 나타나므로, 긍정적 자아평가가 $0.415^2=0.172$, 부정적 자아평가가 $(-0.242)^2=0.059$, 상호작용항이 $0.140^2=0.020$ 의 크기 순으로 개인특성이 환경특성보다 삶의 만족도에 더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또한 다른 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성별구분(남학생=0, 여학생=1)의 추정된 회귀계수는 -0.151로서, 다른 변수가 모두 같다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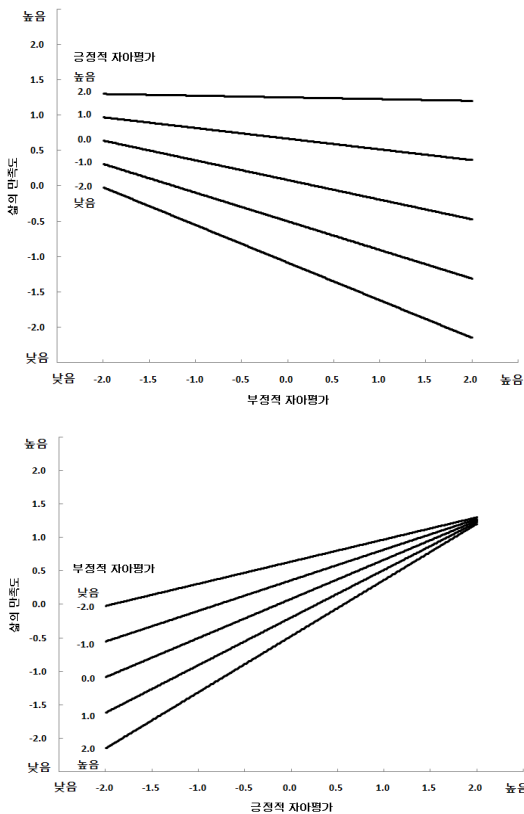


그림 2.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2]는 모형 3의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자아존중감의 두 차원인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모형 3의 긍정적 자아평가, 부정적 자아평가,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평균값을 대입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두 독립변수의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독립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의 첫 번째 그림은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별로 제시한 것이다. X축은 부정적 자아평가, Y축은 삶의 만족도, 그리고 5개의 선은 긍정적 자아평가의 5가지 수준(-2, -1, 0, 1, 2)을 의미한다.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2인 경우처럼 높을 때는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높아져도 삶의 만족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 하지만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낮아질수록,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의 증가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더 급격히 하락한다. 이는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자아평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음(-)의 영향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의 두 번째 그림은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별로 제시한 것이다. X축은 긍정적 자아평가, Y축은 삶의 만족도, 그리고 5개의 선은 부정적 자아평가의 5가지 수준(-2, -1, 0, 1, 2)을 의미한다.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낮을 때는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크지만,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높을 때는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가 작다. 이는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평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음(-)의 영향이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3차년도[29]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3학년 2,040명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환경특성 변수로 가정환경의 부모친밀도, 학교 및 또래 영역에 친구친밀도, 교사친밀도, 학습적응도로 하였다. 개인특성은 사회정서의 자아인식 영역으로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자아존중감을 변수로 하였다[3][8][18]. 본 연구의 주된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친밀도, 교사친밀도, 친구친밀도, 학습적응도의 환경특성 변수들은 삶의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주었다[표 8].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친구친밀도(편상관계수 0.214)였으며 학습적응도(0.173), 부모친밀도(0.115), 교사친밀도(0.071) 순이었다. 즉 또래관계, 학교적응, 부모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기존 연구결과[35]와 일치된 내용이었다. 부모관계는 만족도와 관련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으며 교사는 또래나 부모에 비해 영향력은 적지만 만족도에 관련이 있었다. 특히 환경변수뿐만 아니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을 때 삶의 만족도를 17.7% 정도 설명하는데 비해 개인특성 변수인 자아존중감으로 분석한 모형 2와 비교하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절반 수준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환경특성 변수로만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연구결과[3]와 일치하였고 개인특성인 자아존중감을 고려한 모형 3을 보면 환경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력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긍정적 자아에 대한 평가와 부정적 자아에 대한 평가라는 두 개의 별개의 차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표 2][표 5].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요인들을 측정하는 측정변수들의 공통성은 모두 0.5 이상을 상회하였고 각각의 신뢰도는 0.804, 0.811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개인특성인 자아존중감의 두 평가 척도(긍정적 자아평가, 부정적 자아평가)에 대한 잠재요인들의 구성개념 타당성과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것은 자아존중감이 단일 차원이 아닌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두 차원으로 구성됨을 보여준 실증적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다중회귀분석의 모형 2를 보면 긍정적 자아평가의 편상관계수가 0.504로 상대적으로 큰 값을 보였으며, 개인특성 변수인 자아존중감의 두 평가 척도와 상호작용항으로 구성된 모형은 삶의 만족도를 38% 가량 설명하는 영향요인이었다. 이것은 외적인 환경특성 변수보다 개인의 내적 특성 변수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요인임을 모형 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행연구 결과[5-7][22]와도 동일한 의미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부정적 자아형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긍정적 자아형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전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를 양극단으로 하는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측정되어 왔다[11][14][18]. 그러나 부정적 자아에 대한 평가 수준이 낮은 것과 긍정적 자아에 대한 평가 수준이 높은 것을 한 차원의 다른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긍정적 자아평가는 긍정 정서경험과 관련이 있고 부정적 자아평가는 부정 정서경험과 관련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10]. 인간의 부정 정서와 긍정 정서는 독립적이며 [17], 이와 관련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3][12]을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 평가의 두 차원인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를 독립적인 별개의 차원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정서의 관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두 차원인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표 8]의 모형 2와 3, [그림 2])[36].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높은 경우는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증가해도 삶의 만족도의 하락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또한 긍정적 자아평가가 높은 수준에서는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부정적 자아형성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긍정적 자아형성이 삶의 만족도 개선에 효과적이며,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을 높임으

로써 삶의 만족도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정적 자아형성의 문제해결을 넘어 긍정적 자아형성을 위한 방안과 정책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최근 NYPI 청소년 정책 리포트 가운데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은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냈다[37]. 우선 정책영역별 예산은 사회통합, 위기청소년지원, 교육, 고용, 여가활동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영역의 중요도에 대해 청소년은 위기청소년지원을 가장 중시했다면, 부모세대는 유해환경 단속을 중시했다. 이것은 청소년정책이 청소년의 문제행동 중심 또는 부정적인 현실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와 청소년의 인식도 비슷했다. 결국 청소년들이 많은 활동을 하는 학교와 가정에서도 이와 같이 문제행동이나 부정적 현실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긍정적 자아형성 정책이나 프로그램보다는 부정적 자아형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자아존중감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36]. 긍정적인 삶의 경험으로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 부정적인 자아형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삶의 만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라면 청소년정책 수립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전문가들의 심사숙고가 절실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단일 차원이 아닌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라는 두 독립차원으로 구분하고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함을 실증적으로 보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정적 자아형성을 해결하는 정책보다는 긍정적 자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요청됨을 제안하는 실증적 기초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증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질적연구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연구결과로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특성보다는 개인특성인 자아존중감이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환경특성보다 개인특성이 삶의 만족

도를 개선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개인특성은 변화시키기 어렵고 환경특성은 개선이 용이하다면, 영향요인으로 설명력은 낮지만 환경특성이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효과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향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며 어떤 환경특성 변수가 삶의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지 실증연구와 더불어 질적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이 중학교 3학년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데이터의 특성상 코호트 종단 패널이므로 모든 설문이 완료된 후 패널연구를 통해 실증적 검증과 더불어 질적연구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한국방정환재단, 2014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2014.
- [2]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3, 2013.
- [3] E. Diener and D. Diener,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8, No.4, pp.653-663, 1995.
- [4] F. Fujita and E. Diener,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8, No.1, pp.158-164, 2005.
- [5] 송정화, 다층 모형을 적용한 학생 행복의 설명요인 탐색,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1.
- [6] 전미경, 장재숙,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7권, 제3호, pp.103-118, 2009.
- [7] 허승연,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9.
- [8] 홍연란, 이가연, 박현숙, "대학생들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구조모형", *지역사회간*

- 호학회지, 제11권, 제2호, pp.333-346, 2000.
- [9]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Inc, 1979.
- [10] 이미리,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적응도 :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호, pp.263-293, 2005.
- [11] 성은모, 김균희,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적응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 pp.177-202, 2013.
- [12] 윤민지, 유성경, “긍정정서와 삶에 대한 만족 적응도에서 긍정사고, 의미발견 및 의미추구의 매개효과 검증 :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제21권, 제1호, pp.147-167, 2013.
- [13] 윤숙진,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신경증과 외향성 척도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6권, 제2호, pp.325-338, 2008.
- [14] 조성연, 김혜연, 김민, “생태학적 맥락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대한간호학회지, 제49권, 제3호, pp.87-98, 2011.
- [15] R. J. Larsen, and T. Ketlaar, “Personality and susceptibility to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No.1, pp.132-140, 1991.
- [16] B. L. Fredrickson,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Vol.56, pp.218-226, 2001.
- [17] S. Harter and B. J. Budd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simultaneity of two emotions: A five-stage developmental acquisition sequ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3, No.3, pp.388-399, 1987.
- [18] 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고등학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제36권, 제1호, 2006.
- [19] 이순성,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의 종단적 추이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0.
- [20] 구재선, 성격, 효능감, 생활경험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 토착심리학적 접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5.
- [21] 박선영, “대학생들의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 서울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3호, pp.71-92, 2005.
- [22] E. Diener and M. E. Seligman,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Vol.13, No.1, pp.81-84, 2002.
- [23] U. Bronfenbrenner, “Ecological systems theory. In R. Vasta(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Vol. 6. Six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Revised reformulations and current issues,” pp.187-249, London: JAI Press. 1989.
- [24] S. Lyubomirsky, L. King, and E. Diener,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Vol.131, No.1, pp.803-855, 2005.
- [25]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정서조절 양식과 부모 애착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27권, 제1호, pp.167-181, 2006.
- [26] 이윤화, “조손가족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낙인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2권, 제4호, pp.137-158, 2010.
- [27] 김윤나, 박옥식,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자아존중감, 직업성숙도, 학업성취,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1호, pp.79-99, 2009.
- [28] 신미, “청소년 삶의 질 척도 타당화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1호, pp.163-194, 2012.
- [2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2012a.
- [3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중1패널 1-3차년도 User’s Guide*, 2012b.

- [31] 김신영 외,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1,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 [32] 허묘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0.
- [33] G. C. Armsden and M. T. Greenberg,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6, No.5, pp.427-454, 1987.
- [34] 민병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1.
- [35] 박영신, 김의철,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9권, 제4호, pp.973-1003, 2004.
- [36] D. Watson, "Intraindividual and interindividual analys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s: their relation to health complaints, perceived stress and daily activit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4, No.6, pp.1020-1030, 1988.
- [37] 윤철경,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p.38, 2012.

이 종 석(Jongseok Lee)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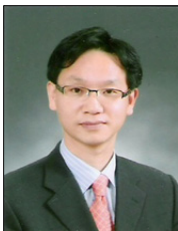


- 1995년 2월 : KAIST 경영과학과(경영학 석사)
 - 2003년 2월 : KAIST 경영공학과(경영학 박사)
 - 2004년 7월 ~ 2005년 8월 :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 2005년 9월 ~ 현재 :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관심분야> : 경영전략, 통신산업, 의료산업

저 자 소 개

정 득(Deuk Jung)

정회원



- 2011년 3월 ~ 현재 :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박사과정
- 2005년 3월 ~ 현재 : 창솔감리교회 목사

<관심분야> : 경영전략, 청소년 문화